

사 랑 사 랑

회원통신 제64호(2000/4/21)

인 권 운 동 사 랑 방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인터넷 웹사이트; <http://www.sarangbang.or.kr>



“강제송환 반대! 난민 인정!”

버마의 민주화운동가 샤린 씨입니다.

한국에서 버마민족민주동맹 활동을 주도해오던 샤린 씨는

현재 인천출입국관리소에서 구금되어 있으며,

언제 본국으로 강제추방될지 모르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그의 강제송환에 반대하며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게 정치적 난민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 잠깐! 생각해볼까요?

선거와 인권 - <교육실 제5차 월례포럼>

민주주의의 발전 척도는 '국민 혹은 인민의 의사'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과 그 결과 속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대의제 의회정치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한국사회에서 선거는 국민 혹은 인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4월 8일 열린 교육실 제5차 월례포럼은 이러한 선거의 의미를 확인하면서 선거 공간에서의 차별문제, 정치적 의사표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엔인권센터가 발행한 "Human Rights and Elections"은 기본적인 인권으로서의 선거권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차별없는 자유로운 선거와 표현의 자유 보장 △평등하고 공정한 선거 보장 △합리적 선거기간과 선거의 정기성 보장 △효과적인 참여와 선택이 가능토록 하는 진정한 선거절차와 후보의 사회적 다양성 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기준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선거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개정 선거법의 경우에도 선거운동기간 이전과 이후 정치적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경직된 장치들을 여전히 많이 갖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선거권은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에게는 부정되어야 하는 권리인가 △만20세 이상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인정하는 연령기준은 적합한가 △해외 유학생 등 해외에 일시 거주하는 국민에게 부재자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옳은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옳은가 △주민등록이 말소된 노숙자나 무허가주택 거주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옳은가 등의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월례포럼에서 명확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선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주제들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월례포럼에서는 선거날만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한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정치적 의사표현과 정치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인정하고 절차를 만들어가야 향후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을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루어졌습니다.

■ 5월 월례포럼의 주제는 '버마 인권'입니다. △버마의 근현대사 △버마 군부정권의 인권침해 △국내 버마활동가의 인권현황 △버마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과 과제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5월 13일(토) 오후 3시 사랑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사 / 업 / 보 / 고

(2000년 3월 넷째 주부터

2000년 4월 셋째 주까지)

≡≡≡≡≡≡≡≡≡≡≡≡≡≡≡≡

인권조약 가입 10주년 이행사항 점검

4월 10일은 한국정부가 유엔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일명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일명 사회권조약)에 가입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약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권조약 가입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는 인권조약의 의무사항이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과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가 인권조약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부는 물론, 사법부와 교육기관 등에서 인권조약이 철저히 무시되어온 것입니다. 정부는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 3권 보장 △무상 교육의 확대 △산업재해 예방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등 유엔의 권고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원 역시 국제인권조약을 각종 판결의 근거로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인권조약

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조약 가입국의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13개 국립대학교 법대에서 양대 인권조약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대학은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전문법조인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에서도 국제인권법은 찬밥신세였습니다.

이에 사랑방은 정부와 법원, 국립대 법대 등에 서한을 발송해 국제인권조약 상의 의무사항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버마 민주화운동가 구제 행동 참여

사랑방은 국내에서 버마민족민주동맹 활동을 벌이다 최근 출입국관리소에 잡혀간 버마 민주화운동가 샤린 씨의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해 사회단체들과 연대행동을 진행했습니다.

'나와우리' '민변' 등 1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샤린 씨에 대한 강제송환 방침 철회와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난민 인정'을 정부측에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애초에 샤린 씨를 본국으로 강제송환할 방침이었다가, 국내 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가 잇따르자, 일단 샤린 씨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샤린 씨가 정치적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약 20여명의 버마민족민주동맹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후 샤린 씨를 비롯한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정부의 처리 과정에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권위원회, 보고서 작업 박차

사회권위원회는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할 민간단체 보고서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의 심의 시기가 2001년 11월에서 4-5월경으로 변경됨에 따라 한국 정부에 대한 질의항목을 만드는 사전실무분과회의도 올해 9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의 사회권 보장 실태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민간단체 반박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회권위원회는 우선 5월초까지 유엔에 제기할 주요 사회권의 문제들을 1차로 뽑아볼 예정입니다. 사회권 조약 해설서 작업은 인력과 시간 상의 문제로 한동안 미뤄집니다.

한편, 사회권위원회가 간사단체를 맡고 있는 아셈2000민중회의 인권분과는 지난 3월 24일 부산인권센터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어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는 부산 신선대 우암부두도 방문했습니다. 인권분과의 제안으로 구성된 신선대 우암부두 진상조사단이 20일 부산으로 조사 방문을 갔습니다. 인권분과의 4월 회의는 21일 서울장애인연맹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인권보고서'팀 곧 시동

4월 중순경 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2차 아동권조약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실이 준비하는 '청소년이 직접 쓴 민간보고서 작성팀' 결성을 위한 발걸

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청소년단체, 동아리, 개인들을 만나 이번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청소년을 모으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팀은 5월 20일경 첫 모임을 갖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위 관심있는 청소년들에게 많이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인권주간' 행사 준비

교육실은 전교조 중·성북 초등지회, 새뜻 공부방 등 서울 중부·성북지역의 교육단체들과 함께 5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어린이 인권주간'으로 선포하고 "희망으로 그리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5월 1일 '어린이 인권교실' 개최 △5월 5일 '새날을 열어가는 아이들의 놀이 한마당' △어린이 인권사진전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6쪽 행사안내 참조).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면 '어린이의 인권'을 형상화한 기념품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에게 어떤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자연스럽게 배울 수도 있습니다.

빛고을에서 인권교육

교육실은 4월 23일 광주에서 '자유평등연대를 위한 인권운동센터'(옛 광주인권지기)와 함께 '2000 광주 - 민간단체 활동가를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월말 교육실이 개최한 '인권교육워크숍'에 참가하지 못한 광주지역 활동가들과 교사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행사입니다.

법정피고인 시승시갑에 이의제기

법정피고인의 시승시갑율이 높아진 것과 관련, 시승시갑의 원칙에 대한 질의서를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양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신체 구속을 명할 수 있다”라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권위원회는 대학생들과 함께 4월 25일~28일 사이에 지방법원을 중심으로 2차 조사를 할 예정이며, 가능하면 헌법소원도 낼 예정입니다.

사/랑/방/단/신

■ 사랑방 홈페이지가 낱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의 팩스, 우편독자 외에는 볼 수 없었던 이동수 화백의 만화사랑방이 홈페이지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촌철살인(?)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재 참세상방송국(<http://cast.jinbo.net>)이 그 주의 주요 인권하루소식을 편집하여 방송하고 있는 ‘주간인권뉴스’를 사랑방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Real Player를 내려받아 설치하여야 됩니다. 아직은 기사를 읽는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 제2회 인권영화제 당시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상영 등으로 인해 기소된 서준식 대표의 항소심 공판이 지난 3

월 31일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또다시 공판을 연기해 결심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서 대표는 1심 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 사랑방 상임활동가들은 4월 7일 ‘신자유주의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월례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사회권위원회의 발제를 기초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불평등한 경제질서 아래서 완전한 인권의 향유란 가능하지 않다’란 기본적인 전제에 공감했습니다. 앞으로 ‘신자유주의 반대운동’에 있어 인권운동의 구체적 행동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남기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 사랑방이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선거일이었던 4월 13일 사무국 성원과 자원활동가, 각 사업단위별 소모임 구성원, 이동수 화백의 가족 등 20여 명은 관악산 정상을 등반한 뒤, 서울대 잔디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날 등반은 능선을 타고 암벽을 기어오르는 코스였기 때문에 몇몇 참가자들에게는 지옥훈련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산 후 “다시는 산에 오르지 않겠다”는 성원도 있었습니다. 반면, 최연소 참가자였던 박래군 사무국장의 큰 딸 성아(8살) 양은 거침없이 암벽을 오르며 선두에서 대열을 이끌어 큰언니들을 ‘기죽게’ 만들었습니다. 즐거운 야유회였지만 후원회원 분들이 거의 참석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계신 분들께 연락드리지 못한 점 사과 드립니다.

■ 사무국에 드디어 '인터넷 전용선'이 깔렸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래층의 PC방에서 선을 끌어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선을 사용하자 사무국 성원들은 그 '놀라운 속도'에 탄성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무국 성원들이 인터넷 항해에 몰두하는 시간이 좀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 민주화운동계승 국민연대가 지난 6일 공식 출범했습니다. 국민연대는 지난 연말 제정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고,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사랑방에서는 박래균 사무국장이 국민연대의 사무처장으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 독립영화운동집단인 '푸른영상'의 남택진 씨가 지난달 말부터 사랑방에서 연수활동 중입니다. 3개월간 사랑방에서 연수를 진행할 남택진 씨는 앞으로 영상을 통한 인권운동의 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인권하루소식팀에 결합중인 남택진 씨는 연일 톱기사를 만들어내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 2000 어린이 주간 행사 ☺

◇ 주최 : 인권운동사랑방,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 중부·성북지회', 새뜻·다솔·성모의집 공부방

1. 어린이 인권교실

: "어린이와 인권, 우리 친구하자!"를 주제로 재미있는 놀이와 함께 어린이 인권에 관해 교육합니다.

- 언제: 5월 1일(월) 오후 4시
- 어디서: 새뜻 공부방
- 누가: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 누구에게: 새뜻·다솔·성모의집 공부방 어린이들

2. 새날을 열어가는 아이들의 한마당 - "희망으로 그리는 세상"

: 어린이날, 다채로운 놀이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신나는 놀이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어린이가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 배울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인권을 주제로 한 예쁜 기념공책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언제: 5월 5일(금) 오전 10시~오후 3시
- 어디서: 개운산 근린공원
- 주관: 전교조 초등 중부·성북지회/ 인권운동사랑방/ 다솔 공부방/ 새뜻 공부방/ 성모의집 공부방
- 내용: 인권놀이 한마당/ 전시마당/ 배우고 활동하기/ 먹거리마당/ 공연마당/ 인권 OX퀴즈

3. 어린이 인권 공동수업

: 각 학교 교실에서 '어린이에게 인권을!'이라는 주제로 전교조 선생님들이 인권 공동수업을 진행합니다.

- 언제: 5월 1일~8일
- 어디서: 중부·성북지역 각 초등학교
- 누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 중부·성북지회 선생님들

4. 어린이 인권사진전

: 세계 각지에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이 개최됩니다.

- 언제: 5월 1일~5일
- 어디서: 중부·성북지역 각 초등학교 전시장/ 아이들의 한마당 장소
- 누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00년 3월 회계 보고

(2000년 3월 16일 - 2000년 4월 15일)

이월금: 480,143원

수입		지출	
사업수익	3,716,540원	사업비	561,290원
-하루소식	3,068,540원	-하루소식 우편발송비	132,330원
구독료(163명)	2,819,140	-자료구입 및 제본비	126,000원
인권시평 배급	249,400	-자유권위원회	9,720원
-간행물 및 자료판매	254,600원	-유엔인권조약 10주년사업	28,980원
인권교육길잡이	5권	-후원회 소식지 제작·발송	14,160원
인간답게 살 권리	6권	-하루소식 합본13호 발송비	90,460원
하루소식 합본호	13권	-출장 및 취재비	110,000원
아이들의 인권	3권	-관악산등반 및 야유회	48,000원
아시아의 인권교육	1권	-기타	1,640원
-강연료	335,000원	활동비	3,560,000원
-원고료	50,000원	유지비(집세, 전기, 수도)	961,340원
-자료복사비	8,400원	통신비	938,410원
후원금	3,780,040원	-전화, 팩스	830,330
-후원회비(61명)	2,035,040	-피시통신, 인터넷	108,080
-특별후원금	1,745,000	사무비품 및 기기	185,000원
기타	339,953원	식비	289,340원
-류은숙씨 기여금	300,000	난방비	48,000원
-은행이자	2,932	생활비	118,530원
-기타	37,021	부채상환	700,000원
		기타	276,390원
		-정간물 구독료	57,000
		-경조사비	160,000
		-기타	59,390
총수입:	7,836,533원	총지출:	7,638,300원
잔액 :			678,376원
현 부채액 :			8,106,500원

<2000년 3월 재정 세부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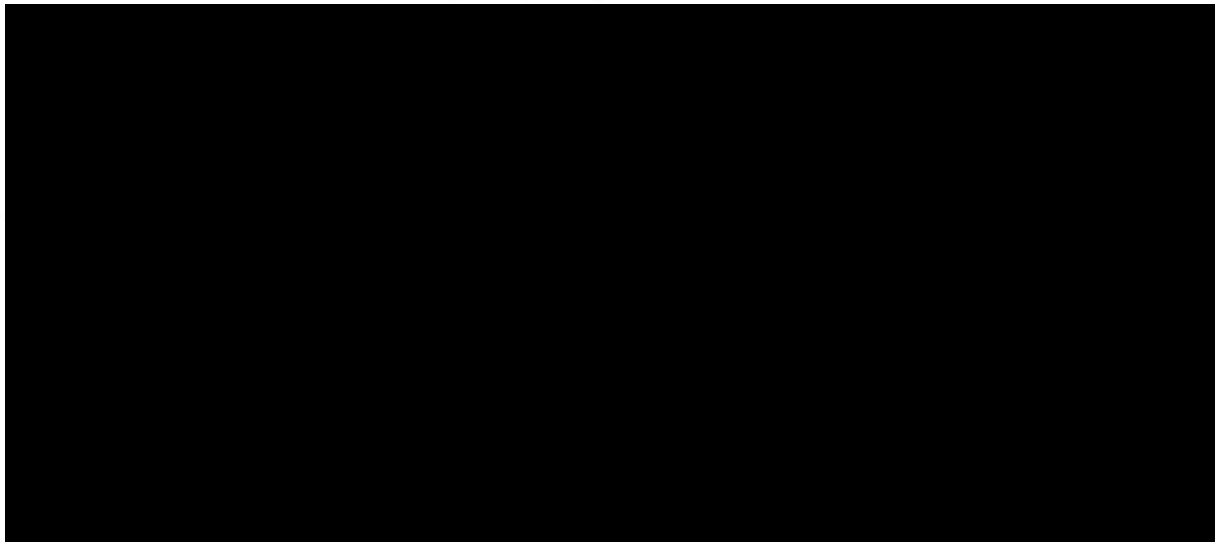
-경찰에 의해 불법 불심검문과 강제연행을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던 김진식(서울대생) 씨가 승소금 전액(336만원)을 후원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직 사용처를 결정하지 못해 이번 달 회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부천 밀알교회(담임목사 박기서)와 연세대 교육동아리 열음, 정인숙 님, 이인숙 님, 김양미 님께서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멀리 일본의 니시무라 선생께서도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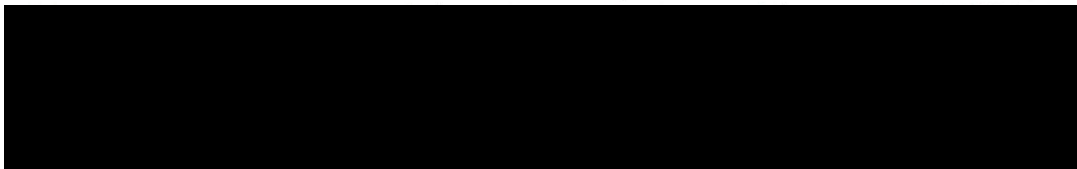
-인권하루소식 구독료 납부율(납부액)과 회비 납부액이 전월에 비해 대폭 줄어든 있으나,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안정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후원회원의 꾸준한 증가에 사랑방이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부업을 하고 있는 사회권위원회 이주영 씨와 총무 이창조 씨가 활동비의 일부를 반납하셨습니다.

<3월 후원회비 납부 감사합니다>(가나다순)



후원회비 납부계좌



*** 기타 문의는 총무 이창조(02-741-5363)